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 주일공동예배는 늘푸른사랑방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젊은이사랑방에서 준비합니다.
- 오후 2시 부터 탁구대회 예선전을 진행합니다.
- 꾸러기학교 봄여행이 20일(화)-21일(수) 공주에서 있습니다.
- 기대연 교장단연수모임이 23일(금) 밀알두레학교에서 있습니다.
- 성서일기 진도가 21일(수)에 시편 22-23편 22일(목)에 24-26편, 23일(금)부터는 레위기 1장으로 바뀌는 주간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낙귀 집사 · 정혜정 권사 가정 (감사)
김종훈 · 장미라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20 호

2025년 5월 1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축복받은 때, 바로 오늘 지금

얼마 전에 멧쟁이학교에서 <멧쟁이 가족 상봉의 날>을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홈커밍데이'라고 불렀지요. 졸업생과 재학생이 만나는 장을 열고, 서로 교류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때가 평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 사이였기 때문에, 어지간한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쉽사리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때부터 반가운 얼굴을 보여주거나, 저녁에라도 부랴부랴 찾아와준 것이 펍 고마웠습니다. 평상시에도 보는 사람임에도, 그때만큼은 신비한 매력이라도 있는지, 동문 하나하나가 더욱 특별하고 멋져 보이더군요. 졸업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동문부터 벌써 20여 년이나 세월의 간격이 있는 동문까지 모두가 그랬습니다. 개중에는 2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는데, 청춘이란 말이 아깝지 않도록 다들 생기가 활짝 피어있는 꽃 그 자체였습니다. 함께 축구하고 대화를 하니 마치 20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지요. 그래도 축구하면서 이따금 그러더군요.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라는 곡이 있습니다. 지나간 청춘을 떠올리는 노래입니다. 원래도 좋아하는 노래였지만, 동문회 이후에 다시 들어보니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사 일부를 옮겨보자면 이렇습니다.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 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우~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오네
우~ 영원할 줄 알았던
스물다섯 스물하나

20대는 육체적으로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정신적으로는 순수함을 추구하고, 시적으로는 어떤 객기나 고집을 부려도 마치 맞춤처럼 어울리는 때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 시기를 다루는 노래나 문학, 그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서 말한 '청춘(靑春)'이란 단어도 이 시기를 포함하는 '푸르른 봄'이란 표현입니다. 누군가는 극단적으로 "청춘 이후의 인생은 젊었을 때를 회상하기만 하는 날들 뿐이다."라고도 표현했고, 누군가는 "젊은이에게 젊음은 너무 아깝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만큼 젊음이 한 번 있는 인생 안에서 막대한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

선교와 섬김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두가 흔히 그러듯이, 그 풍요로운 바다안에서 헤엄칠 때에는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음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마냥, 무한한 자원인 것마냥 써먹곤 하지요. 그것은 이미 그 세월을 지나온 사람이 보기엔, 돈을 길가에 버리고 다니는 것 같은 낭비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가치를 크게 느낄수록 더욱 말이지요.

하지만 오히려 청춘이기 때문에, 육체적 정점에 이르러 정신적 성숙을 이룩해가는 과정이기에, 낭비로 보이는 시간과 체력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또한 권장됩니다. 청년은 젊음을 주고 나이를 얻고, 경험을 얻고, 인연을 얻고, 기술을 연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을 수많은 저울질과 선택의 기로에서 효율과 성과만을 따질 수 만은 없습니다. 젊음은 비교와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정점에서 시시각각 깎이고 마모되어가는 육체와 열정과 용기를 끌어안으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의도를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일 따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 길은 불확실하고 모호합니다. 그러니 본래는 길로 보이지 않을 담벼락도 넘어보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과를 중히 여기는 세상에서는 그 과정을 '헛되고 비효율적인 낭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먼 길로 돌아서 갔기에 더 맛있는 편의점의 아이스크림이나, 빙 돌아서 갔기에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듯이 그러한 낭비가 있기에 도달할 수 있는 영역도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하루는 나가야 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처럼의 빨간날을 아깝게 보내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각각 때에 알맞게 우리 인생을 준비해주셨습니다. 나이가 먹는 것에는 누구도 한탄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오늘이 가장 육체적으로 젊은 날입니다. 지금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겨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빙 둘러간 길이 사실은 행복의 지름길이었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세상에게도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가 영원하지 않음을 다시 떠올리면서 말이죠.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전도서 12:1)"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200, 452 / 560

기도 :

성경 : 마가복음 10:17-31

제목 :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1.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What)
 - 1) 형식 = 대화, 예수님과 젊은이<17-22> 예수님과 제자들<23-31>
 - 2) 주제 =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서론<17>과 결론<30>에서.
 - 3) 결과 = 어렵다. 가진 것을 팔아서 주어야. 와서, 나를 따라라.<21>
 - 4) 보충 = 가능하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27>
 - 5) 특별 = 비유 사용.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25>
2. 사람에게에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Why)
 - 1)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 2)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였다.
 - 3)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이다.<27>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다.
3. 물질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How)
 - 1) 영생, 물질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 2)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락하시면 돈을 많이 버십시오.
 - 3) 하나님께서 주신 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성서일기

요즘 내가 하는 일

열심히 음향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특정 아티스트를 담당해서 함께 다니며 무대 음향을 주로 했다면 요즘에는 전에 하던 일과 더불어 공연 준비를 위한 합주의 음향과 라이브 콘텐츠(딩고 뮤직 같은) 녹음과 음반 녹음도 시작해서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짧게는 1년 길면 몇 년까지도 봐야 하는데, 몇 개월 단위로 제 일과 생활이 확확 바뀌는 중이라 더욱 정신없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연결하고, 무대를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해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계속계속 성장하고, 더 큰 일을 맡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기회가 다가올수록 부담스럽고 하기가 싫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체 왜 하기 싫을까,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하는데 왜 부담스러울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계속계속 하다 보니, 너무 잘하고 싶은 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보고 공부해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법인데 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니 모든 기회가 버겁게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더 생각해 보니 이러한 마음이 제 자만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은 다 잘할 수 없고 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모두 제가 이루어 낸 일이고 저에게 달린, 제가 좌우하는 일이라 생각한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고 싶은 욕심과 마음을 내려놓고 뭐든 열심히, 즐기며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며 배우는 일도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이유로 일을 맡기는 것도 정말 싫었는데, 역시 제가 생각한 것이 언제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무섭다고 미룬다고, 잘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길을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주시는 길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려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푸른사랑방 한민아 청년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 편 42 : 1-5 인도자
36 다함께
 인도자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대표기도)

요한복음 3 : 16-17 인도자
 다함께
205 다함께
 다함께
진시우 늘푸른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아모스서 8 : 11-13 화진의 늘푸른
성가대나로부터 시작되리, 당신은 영광의 왕 늘푸른사랑방
설 교 “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설교자
455 다함께
 정이안 늘푸른
410(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은빈 김지우 / 봉헌위원 : 이은빈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늘푸른사랑방이 예배를 주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을 흔들려는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내가 기근을 보내겠다. 내용은 세 부분입니다. 내용의 중심은 “그 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11a> 내용의 중심에 대한 설명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 말라 할 것이다.”<11b> 결과는 “그 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12>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그 날이 온다”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는 미래와 과거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기근, 즉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 나아가 멸망입니다.<13>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정영옥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이번 주에는 센싱더스토리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 활동을 했습니다. 우선 깨끗한 큰 박스 6개를 펼치고, 테이프로 펄펄 고정을 시켜서 아주 멋진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란 천을 배 아래에 깔고, 폭풍우 소리를 크게 틀면서 파란 천을 배가 흔들리게 흔들어서 재연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연습하는데 파도가 쳐도, 배가 흔들려도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깔깔 웃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진지하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나 곤경에 처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일에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꾸러기들도 예수님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멋쟁이 친구 4명이 와서, 파란 천을 흔들어 파도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 도와준 언니들에게 꾸러기들이 고맙다고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예쁜 봄의 모습을 보러 광릉수목원에 다녀왔습니다. 큰 울창이부터 예쁜 꽃과 나무 그리고 온갖 벌레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다양한 애벌레 친구들을 찾아 관찰하며 놀았습니다. 보물찾기 하듯 찾아보면 재밌는 볼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유난히 날씨의 변화가 많았던 이번주, 어린이들이 참 바빴습니다. 몇 주전부터 준비하던 5월 캠프여행과 스승의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해도 서울대공원자연캠프장으로 캠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3끼를 먹는데 어찌나 식재료와 식기류가 많이 필요한지 어린이들마다 짐 가방이 여러 개 입니다. 무거운 가방을 힘겹게 들고

긴 언덕을 올라가지만 즐거움과 기대에 모두 밝은 모습입니다. 점심메뉴는 마라탕, 만두전골, 닭볶음탕, 김치볶음밥 입니다. 저녁메뉴는 오리고기, 보쌈, 소세지볶음밥, 삼겹살입니다. 물론 간식으로 화채와 라면도 빠질 수 없지요. 식사가 완성되면 먼저 선생님들 텐트에 맛보시라고 갖다주는 어린이들의 손길이 참 예뻐합니다. 수고한 조장들과 조장들을 도와 열심히 각자의 역할을 해 준 동생들, 그리고 언제나 부탁드리면 달라와 주시는 아버지선생님들, 서로에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캠프를 다녀온 다음날, 어린이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연극과 노래, 악기연주와 퀴즈쇼를 준비하여 선생님들을 웃음짓게 해 주었습니다. 하루동안 선생님의 자리를 지켜주신 어머니선생님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준 어린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가정학습기간이 끝나고 다시 만난 얼굴들은, 1주일의 휴식으로도 감추기 어려울 정도로 탄 피부가 돋보였습니다. 멋쟁이들에게는 꿀 같이 달았던 휴식기간 이었지만, 다시 멋쟁이 생활에 몸시계를 맞추면서 피로도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스승의 날을 겸하여 홈커밍데이, 이른바 <멋쟁이 가족 상봉의 날>을 열심히 준비했던 과정의 수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즈음부터 졸업생들이 속속 찾아오며, 축구나 보드게임 등 즐거운 활동이 이어져갔습니다. 졸업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어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애기도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풍성한 저녁식사 후에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서로 준비해온 코너를 진행하며, 한층 서로를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헤어지려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연을 끈끈하게 확장해서, 시너지가 활짝 피게 되길 소망해봅니다.

< 교사 : 이어진 >

주보를 정리하면서

주보 정리를 하는데 한주간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베드로전서 4장 9절 >
약간 울컥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불평 없이 라는 말은 생각지 못했었나 봅니다.

불평 없이? 이 말씀 중에 이 단어가 입에서 맴돕니다.

2023년 두 번째 주 주보를 보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 고린도전서 13장 7절 >

이 구절도 좀 더 울컥 합니다.

“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

< 요한복음서 13장 14절 >

아—— 결론은 사랑하라는 이야기구나!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꿈꿉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윤희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67, 79, 212

성 경 : 전도서 12장 1~8절

말 씬 : 허무 이상이 하나님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위해

지난 8일에 새로운 교황으로 레오 14세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목표어를 갖고, 전쟁 방지와 억압을 주목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영향력으로 평화가 가까워지길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이 땅에 녹색교회가 점차 늘어나고 환경 운동에 동참하기를

- 기후 위기 속에서 자연과의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고 선택하기를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1) 공동체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

2) 미국에서 여행을 시작한 멋쟁이를 위해서

3) 어린이학교 캠핑 여행을 위해서

< 생활공동체 소식 >

멋쟁이 가족 상봉의 날을 맞아 학교를 찾아준 반가운 얼굴들에게 공동생활 식구들은 맛있는 저녁을 대접해주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며 공동체 안에서 누렸던 행복한 기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밭에는 이제 작물들이 무럭 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영농부에서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진짜 풍성한 녹색의 계절이 왔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